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4면)

위례 '킵보드 없는 거리' 현장 홍보

박지선 송파구의원(장지동·위례동)은 지난 9월 17일 위례 트랜зит몰 일대에서 시행되는 '킵보드 없는 거리'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활동에 참여했다.

박지선 의원은 "위례 트랜зит몰 '킵보드 없는 거리'는 주민 1,112명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인 만큼, 실제 시행 내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정착시키는 과 정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려겠다"고 말했다.

